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5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0 호

불기 2566년 종령 봉축 법어

보시·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을 내몸같이 생각하자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못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진 자가 더 베풀고 나누어 준다면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마음은 미움으로 서 풀어지지 않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 풀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도 동쪽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이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 가족에게 거주지 제공 교계 최초 직접 지원, 전쟁 속 상처 아물기를...



우크라이나 피란민 올가 신 가족은 종단이 제공한 거처로 입주를 마치고 함께 축원 불공을 올렸다.

“원력이 지극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성에 감응하시는 부처님. 올가 신과 세 자녀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심신이 안정돼 건강하게 지내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

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란민이 되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일제강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민족의 후예) 가족이

부처님 품안에서 평안을 찾았다. 13살 딸과 11살 아들, 3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온 올가 신 씨. 변호사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하리코프를 떠나 육로를 통해 슬로바키아로 탈출 후 독일의 빈을 거쳐 3월 28일 한국 입국 후 한 달여 만이다. 이들에 대한 도움은 외국인 지원 법적 근거 부재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지난 제98회 춘계 강공회에서 올가 신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종단이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 참석 스승 모두가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불교계 최초로 난민 직접 지원에 나선 종단은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종단 소유 스승 숙소(역삼동 소재, 삼원미리내 타운)를 임시 거처로 내주기로 했으며, 서울시 강남구와 강남주거복지센터로부터 삶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받아 지난달 25일 이들 가족은 입주를 마쳤다.

이날 총지사 주교 목경 정사(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와 법수연 전수를 비롯해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 총지사 신정희 최영아 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꽃과 생필품을 선물로 전달하고 올가 신 가족의 마음 속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를, 또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깃들기를 발원하는 축원 불공도 함께 올렸다.

9면으로 이어짐

불기 2566년 통리원장 봉축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불자(교도)여러분들과 함께 봉축드리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하기를 서원합니다.

교도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삼계에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팔만사천 가지 해탈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니 마음버릇 하나 고치면 바로 부처님의 장엄적멸궁입니다.

하지만 무량한 세월동안 탐욕 속에서 부처님의 대자비의 문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화택 문 안에서 윤회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역설적이게 어디

본심인 자비심으로 세상 밝힙시다

론가 질주하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 질주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앙굴리말라처럼 자신과 못 생명을 해치는 폭주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화택 문 안에서 해매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교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점점 일상을 되찾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잘못된 마음버릇에서 살아온 일상이라면 우리는 부처님이 열어 놓은 해탈구원의 문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선 번뇌운

회의 문으로 가는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신 우리의 본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본심속에서 나와 세상을 밝히는 해탈구원의 문으로 우리의 일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의 본심(本心)인 자비의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안녕이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종/조/법/어

부모님 낱아서 길러 주시고 부처님 모든 것 내게 주시니 그 은혜 세세생생 갚겠습니다.

=지 면 안 내

5면 종단 봉축사
6,7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특집 화보
8면 종조 원정대성사 일대기 <7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 불기 2566년 - 봉축법요식

날짜 : 총기 51년 5월 8일 일요일

장소 : 불교총지종 전국사원

참석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중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자기 잃지 말고 여래의 덕성으로 세상 밝혀야

真理(진리)의 새벽을 열어서
現前面目(현전면목)을 보이니
日月(일월)은 하늘의
功德(공덕)을 빛내고
산과 들은 초목등을 밝혀
法界(법계)를 장엄합니다.

곳곳에서 玄妙(현묘)한 기틀을 갖춘
이가 神靈(신령)스러운 빛을 놓으니
이르는 곳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度脫(도탈)의 門(문)이 열리고
비로소 보고 듣는 기틀을 얻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十方法界(시방법계) 門(문)을 다
열어놓고 찾아보아도
부처님 계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在在處處(재재처처) 卽為有佛(즉위

유불)인데
어디에 계시는지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生滅(생멸)이 없고 去來(거래)가 없
이 法界(법계)에 충만하여
꽃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隱現自在(은현자재)하여 중생의 고
통이 있을 때는
사랑과 자비로 그 모습을 나투고 寂
靜三昧(적정삼매)에 들 때는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은
救世(구세)의 德(덕)과
무연대비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救世大悲(구세대비)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大悲(대비)는 배불수록 救濟(구제)
의 덕화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饒益(요익)케하는
利他的(이타적) 德行(덕행)은 깊어
집니다.

비록 중생이 無明(무명)을 지니고
있지만 無明(무명)은 道(도)를 이루
는 바탕이요, 煩惱(번뇌)는 살아있
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입니다.

貧女(빈녀)는
本分鉗鎚(본분검주)로 막혀있던
關門(관문)을 열어
중생의 가슴에 天地(천지)를 밝히는
悲願(비원)의 燈(정)을 밝히 듯
弘子(불자) 여러분도 三毒(삼독) 속
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如來(여래)의 德性
(덕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인류의 행복을 지심으로 발원합시다

강에 물이 맑으니
달이 와서 머무르며
민고 따르는 고운 마음
부처님을 닮아가네.

여래의 자리는 오고감이 없으나
다만 일대사인연이라.
중생의 부름에 응하시어

사바에 나누시니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법의 등불
공양 올리세.

생사의 윤회는 고통이요,
부처님 세계는 안락이니
일심으로 귀의하여 찬탄하며

국운 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지심 발원하고

지혜와 자비로 만나는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불의 길을 향해
용맹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경정 정사

사람 사는 세상을 생각 합니다

오늘은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톨미니 동산에 꽃비 흩뿌려 봉축
하고 푸른 하늘 넓은 별판이 함께 기
뻐하니 때와 장소 가림 없이 부처님
이 오시도록 마음 맑은 선남선녀들
손 모아 받들니다.

사람의 목숨은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고 사람살이 귀하고 천함이 본
래 있지 않다며 평등과 정의의 목소
리 저저거거 넘쳐나도 허공에 메아

리처럼 빈 소리로 흘러가니 사람 사
는 그 세상이 다시금 그림습니다. 입
고 먹고 머무는 생활이 풍요를 누리
고 사람을 넘어설 듯 기술문명의 끝
은 몰라도 공평과 공정은 늘 제 자리
에 머문다며 나날이 아프고 볼멘 투
정이 높아가지만 지구촌은 그래도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인생살이 복잡하여 이래저래 주장
해도 이 길을 다시 살피 저 길과 맞

추어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와
내가 어울리고 깊은 갈등 힘겨운 질
병 더 무거운 문제도 끊는 물에 얼음
녹듯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옆 사람을 보살
펴라. 참회 지혜 자비는 늘 그대로
진실이거늘 지금 나부터 실천하고
사회를 돌아보며 사람 사는 멋진 사
회 여기서 열어갑시다. 우리 모두 다
시금 부처님오심을 봉축합시다.

-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 기념-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전

불공 잘해라

불교총지종

공모내용	『불공 잘해라』를 읽고 독후감 제출
응모자격	교도 및 독자 누구나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A4 용지 10point 2매 내외)
접수기간	총기 51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접수방법	이메일 news@chongji.or.kr 또는 방문 접수
수상자 발표	7월 중 발표 후 총지신문 게재
시상식	창종 50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
시상 내역	총령상, 통리원장상, 종의회의장상 외 (상패 및 부상 수여)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관정사

주교 | 우인

02-736-0950

별인사

록경정사

02-762-1412

범천사

주교 | 화령

031-751-8685

백룡사

주교 | 승원

02-889-0211

시법사

주교 | 혜광

032-522-7484

실지사

주교 | 덕광

02-983-1492

지인사

주교 | 법우

032-528-2742

정심사

02-491-6888

총지사

주교 | 록경

02-552-1080

서울·경인 교구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자비 충만하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봉축탐등을 밝히면서, 부처님오신날에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했습니다. 정관계와 의료계, 그리고 전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도 여전하며,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진영과 종교, 민족을 이유로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의 굴레에 속박된 사람들, 운명론이나 쾌락주의에 속박된 사람들의 무지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실상에 맞게 바르게 살면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우리 자신인 인간과 우리의 삶인 일상의 가

치를 발견하고, 일상 그대로 거룩함이 되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직면한 현실 외에 다른 거룩한 것은 없다는 즉사이진(即事而眞)의 안목으로, 평상심 그대로 진리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깨달음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존재의 실상 가운데 하나는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비롯한 온 생명, 온 우주에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존재가 별개의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 생명이며 한 생명입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이러한 존재의 진실을 놓치고,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합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존재라는 자각과 실천이 위기를 전환시키는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나아가 나보다 어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입니다. 가없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고, 미래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자비희사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탄생 일성으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선언하셨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갖추고, 온 생명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늘 롬비니 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모두가 나날이 행복하길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 법석(法席)을 열고 봉축의 환희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작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해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산불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평상심을 회복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 정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크나큰 위신력과 우리들의 서원, 정진으로 오늘날 겪고 있는 이 난관은 극복될 것입니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되찾도록 지혜를 모으고 서원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나라,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전쟁과 비인도적 행위는 범죄입니다. 존귀한 생명을 해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일은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의 패권야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삼심을 회복해 다시 희망이 꽃피는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다. 상생과 공존의 연등을 밝힙시다. 사람마다 행복하고 집집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일체중생이 그 모습 그대로 부처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상은 병고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보다 큰 용기로 내일을 희망하고, 보다 넓은 자비로 이웃을 보살피며 자비실천에 힘쓰면 매사가 순조롭고 만사에 복덕이 깃들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불자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

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오늘 불자들의 마음속에 밝힌 등불이 범등명 자등명의 꺼지지 않는 진리로 남아서 일체중생의 행복을 비취 줄 것입니다. 그 광명이 모든 생명의 건강과 평화를 지켜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초심으로 세상 밝힙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 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여의 법신을 갖추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함이며, 인간들의 온갖 고뇌에서 해탈의 길을 밝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생명의 가치는 그 내밀한 진여

의 빛으로 새롭게 산하대지에 새 생명처럼 소생해야 합니다. 지금의 중생계는 생명 망각의 습관으로 빚어진 현상입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은 삼독심이 들끓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핵전쟁의 위험성, 기후환경 변화, 전염병 창궐 등으로 점철되고 전쟁의 포화가 생존의 터전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종교분쟁까지 확대되어 송고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공멸불이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마음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이니 평화의 공존을 성취하기 위한 참회와 기도 정진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세상을 맑고 밝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따라 정법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온 세계가 하나의 꽃으로 피길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겨레와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가 충만하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온 세상이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이기적 욕망과 분노, 갈애와 질투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가득찬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각에도 세계는 갈등과 대립, 적의와 욕망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잔혹한 인명살상은 온 세계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경전에 담마기금(擔麻基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삼)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금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짊어진 짐(삼)이 아까워서 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도 어리석게 짊어지고 있는 짐(삼)을 지금 바로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지금 바로 내려놓으면 더 가볍고 행복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바른 삶의 길을 이웃과 더불어 지혜롭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지금 여기가 바로 고행이고, 바른 삶의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겐 지금 여기가 바로 청정 불국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나 자신과 우리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로 꽃피는 일화(一花)의 세상이 되길 발원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주교 | 정인화

051-896-1578

단향사

주교 | 지홍

055-644-5375

덕화사

주교 | 법상인

051-332-8903

밀행사

주교 | 행원심

055-354-3387

법성사

주교 | 법선

051-468-7164

삼밀사

주교 | 묘홍

051-416-9835

성화사

주교 | 금강륜

051-254-5134

실보사

주교 | 서령

052-244-7760

운천사

주교 | 정원심

055-223-2021

일상사

주교 | 수행월

055-352-8132

자석사

주교 | 도우

051-752-1892

화음사

주교 | 원당

055-755-4697

동해사

주교 | 법선

051-556-0281~2

정각사

주교 | 법일

051-552-7901

부산·경남 교구 일동

제98회 춘계 강공회 청송서 개최

승단총회, 저소득층 교도 생활지원 의결



제98회 춘계 강공회가 지난 4월 20, 21일 양일간 경북 청송에서 개최됐다. 강공회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씩 종단 모든 스승들이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의 주요 의

서는 첫날 오후 2시 개강법회를 시작으로 종령 범공 예하의 강훈과 범일 정사의 강의에 이어 제148회 승단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승단총회에서는 불교총지사회복지재단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 사원의 교도 중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계 최초로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과 관련하여 참여 스승의 동의로 종단 소유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승단 총회에 앞서 범공 종령 예하는 제13대 종의회의장에 선출된 법상인 전수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종단발전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의 가르침

지혜의 눈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의 파괴, 기후 이상 초래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생명 중심으로 옮겨야

17세기에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고 1756년에는 빙켈만이라는 독일의 미술 사학자가 그리스 미술 모방론을 펴내면서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등장한 것이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러나 요하임 빙켈만이 찬양해 마지않은 그리스 조각의 순백의 미는 이후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나찌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조각은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화려한 색상을 입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벗겨져 흰 색의 대리석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래 색이 없었던 것으로 오해한 르네상스 미술가들의 생각을 답습한 빙켈만의 오류였습니다. 아니 빙켈만은 세월의 풍파로 색상이 벗겨져 흰 색의 대리석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세계관으로 그리스 미술을 재구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영향은 히틀러의 아리안 인종의 우월주의에 미치고 결혼식 때 입는 흰색 드레스에 남아있게 되는데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드레스는 근대의 창작품이자 심지어 인종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전주의는 고전에서 곱집어낸 규범을 미술 활동에 강제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등장하였고 뒤이어 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사실주의는 미술의 주제가 신화와 성경의 내용, 왕족과 귀족의 취향에 맞는 것을 버리고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19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프랑스 대혁명이 실패했지만 한 번 물고기가 트인 일반민들의 의식은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은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정치적 평등이 확산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의 영향으로 신화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상상의 창작물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미술이라면 사실주의는 현실에서 주제를 가져왔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인상파의 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와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술가의 상상이라는 주관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대적 상황에 의해 강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원근법과 사물의 고유한 색이라는 원칙은 모든 미술가들에게 강제되었지만 19세기 중반의 인상파에 오면서 이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 비례와 사물의 고유한 색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퇴보한 듯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화가들이 보여준 그림은 현실의 모습과 다르게 그려집니다. 한마디로 미술가 자신이 느낀 인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미술가의 주관이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면 서양 사상의 전통이 플라톤의 이데아나 기독교의 유일신론이나 근대의 이성인 것이 가진 획일적이고 절대적 원칙으로 자신들과 다른 세계와 인간을 자신들의 잣대에 맞추어 강제로 바꾸려는 세계관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이 일(一)에 대하여 다(多)를 중시하는 자각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선과 악, 시(是)와 비(非)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서양이 같습니다. 단지 두 영역을 대립적으로 보는 기왕의 서구 문명과 달리 이 둘을 상보적(相補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분야에 국한되었고 정치 경제는 여전히 예전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 20세기에 들어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었죠. 지금은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자연의 파괴로 기후 이상을 초래하였고 인류의 멸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하였지만 생명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생명 중심의 세계관은 불교에서만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제161회 정기 중앙총의회

총기 50년 결산심의, 새 사감위원 선출

제161회 정기 중앙총의회(의장: 법상인 전수)가 지난 4월 14일 본산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기 50년 결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총의회 의원 정원수 조정 종법 개정은 부결됐다.

또 이번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불

교총지종유지재단 임원 2명과 사감위원 사감위원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졌다.

△신임 유지재단 이사 승원 정사(벽룡사), 보현 전수(실지사)

△신임 사감위원 묘훈 전수(삼밀사), 법선 정사(법성사), 서강 정사(흥국사)



승원 정사(벽룡사)



보현 전수(실지사)



묘훈 전수(삼밀사)



법선 정사(법성사)



서강 정사(흥국사)

불교TV 제28기 정기주주총회

통리원장 우인 정사 신임 이사로 선임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제28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31일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교체에 따라 우인 정사를 당연직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변경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대견사 회주 성문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구본일 불교TV 사장 등을 이사로 재선임했다.

회장 무봉 성우 대종사는 “뉴미디어 방송 환경에 부응해 다양한 포교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만 보 사

주 교 | 유가해

042-255-7919

법 황 사

주 교 | 인 선

062-676-0744

중 원 사

주 교 | 정정심

043-833-0399

흥 국 사

주 교 | 서 강

063-224-4358

혜 정 사

주 교 | 진일심

043-256-3813

충청·전라 교구 일동



총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실천수행이 없으면 열매가 없네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자비와 지혜의 아버지인 석가모
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
니다. 총지종의 모든 사부대중과
함께 지심으로 봉축합니다.

교도 여러분,
모든 중생은 형상을 통해서만
분별하고 집착합니다. 형상 없는
법신불을 중생은 알 길이 없습니
다. 우리의 간절한 서원에 따라
중생 제도를 위해 중생의 몸으로
나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분
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
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신

으로써 일대사인연을 보이셨고, 몸소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으신 후에도 교화에 힘쓰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나 수행 실천을 통해 깨닫고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법을 보이셨습니다.

범규경에는 ‘모양이 아무리 고
와도 향기 없는 꽃은 결실이 없네.
아무리 좋은 가르침 들었다 해도
실천수행 없으면 열매가 없네’라
는 계송이 있습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일체 지해와 모든 선법은 정진으로 일어나며, 모든 서원도 정진으로 성취된다.’며 우리 종단의 소의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의 육바

라밀행을 총지종의 실천수행법으로써 설파하셨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바로 부처님이 오신 이치를 잘 깨달아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믿고(信), 부처님의 법의 진실을 알고(解), 부처님의 행을 바르게 닦아(行) 마침내 깨닫기 위해(證)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교도 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빈자일등
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경배하며
지혜가 증장하고, 일체서원 이루
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부처님의 동체대비를 실천하자

가고 있는지, 편리함에 젖어 남용하는 비닐봉투 및 일회용품으로 인해 지구의 신음소리를 들은 우리 불자들은 자연 환경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두는 중증제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
하였기에 이타(利他)정신을 생활화
합시다.

한사람이 자기 마음속의 불씨를
억제하지 못하여 축구장 113개에 달
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장장 8시간
만에 진화된 어마 무시한 피해를 입
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불씨를 어떻
게 관리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마
음 쓰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며 불법
을 생활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것도 많은 공덕을 짓는 일이지만, 난타 여인처럼 다른 이웃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연등을 밝히는 행위는 무명을 깨쳐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발원과 이웃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힘들어하고 있을
모든 이웃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연
등을 하나 더 밝힙시다.

불자여러분!
넓고 큰 서원과 절절한 마음으로
밝힌 연등의 광명이 지구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들의 고뇌를 벗어나
게 함은 물론, 자유스러워지고 행복
해지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
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
흠 옴마니반메흠



부산경남교구장 법일 정사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신에 달렸다

란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시절은 이제 변하여 방역과 거리두기란 낱말로 채워졌습니다. 그간 정을 나누며 살아오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자기에 의해 악을 짓고, 자기에 의해 더러워진다. 자기에 의해 악을 짓지 않고,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 달렸다. 아무도 다른 이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법구경>

지금도 코로나와 코로나 변이에
의한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

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당사자들과
세계 각국 사람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님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살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에 의해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원당에 연등을 밝히며 우리는 잘 살피어야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의 평안과 내일의 희망이 샘솟는 삶을 꿈꾸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가자

인한 인명상실과 경제적 고통이 조금씩 완화되고, 지구촌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지혜 자비와 화합 정신에 입각한 상호 신뢰와 협력, 공존과 상생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 세계에 나투신 경이와 찬탄과 환희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일곱 걸음을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일성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만전하에 본래부처를 선언하
심이요, 생명의 존엄과 천부적 자유
를 내보이시어 일체의 중생들을 생
사유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본래
의 성품인 참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
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하는 것입
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
자와 교도님들이 지혜와 광명의 연
등을 밝혀 가정과 이웃의 아픔과 슬
픔을 함께하며, 범신 비로자나 부처
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일체중생
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
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성도합시다.

부처님오신날

개천사 주교 인덕심 053-425-7910	건화사 주교 도관 054-761-2466	국광사 주교 해안정 054-772-8776	단음사 주교 남혜 054-333-0526
선림사 주교 법상 054-261-0310	수계사 주교 수현 054-745-5207	수인사 주교 법상 054-247-7613	승천사 주교 지선행 054-764-7434
제석사 주교 원만원 053-743-9812			

대구·경북 교구 일동

3년 만에 열린 연등회,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서원

한국불교계 대표로 통리원장 우인 정사 개회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300여 교도 연등행진

“지금부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어윽립한마당, 연등법회를 사부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봉행하겠습니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한 통리원장 우인 정사의 개회사로 봉축 연등회 개막 연등법회의 막이 올랐다. 60여개 사찰을 비롯한 각 불교단체 신도 등 1만 여 명의 대중들이 함께한 동국대 운동장은 환의심 가득한 환호와 박수의 봉축 열기로 가득 메워졌다. 종단은 서울경인교구를 중심으로 스승과 교도, 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농악대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등회 행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연등법회에 앞서 펼쳐진 어윽립한마당은 흥겨운 음악과 연희단의 활기찬 율동은 관중석 불자들의 신명나는 어깨춤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연등회에서 ‘다시 희망 넘치는 일상으로’ 회복을 서원하며 연등을 밝혔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행렬은 오후 6시 폭죽이 터지며 금빛으로 반짝이는 종이가 흩날리면서 시작을 알렸다. 흥인지문(동대문)부터는 200여 개의 장엄등이 3만5천 여 참석 대중의 오색연등과 어우러지며 장관을 더했다.

종단은 처음으로 육합상과 음마니반메흠 본존을 장엄물로 제작해 종단의 종지와 상징을 알렸다. 또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의 주인공 포와 평화의 상징 시푸, 그리고 용맹한 타이그리스를 우리의 전통등으로 선보였다. 종단 장엄물은 특히 구경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조계사까지 이어진 행진은 오후 9시부터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과 강강술래 등 대동놀이로 회향했다.

취재 박재원 기자
사진 박상우 교무



1



2



3



4



5



6



7



8



9

‘2566부산연등축제’ 개막



‘2566부산연등축제’는 4월 30일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부산경남교구장 범일 정사와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가 동참해 등불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교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연등회 부스행사에 참여하여 다도 시연을 비롯해 만다라 색칠, 투호, 음식 나눔 등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봉축했다. 사진=정각사 제공

1. 연등법회를 마치고 스승을 선두로 300여 교도가 동국대를 출발해 행진에 나섰다.
2. 종단의 꿈나무가 스승님을 따라 입장하고 있다.
3. 동국대 운동장에 운비한 1만 여 불자들이 속에서도 빛나는 불교총지종.
4. 저녁 노을과 함께 총지의 등불이 종로 시가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5.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불기 2566년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6. 종단은 총지종 만장을 앞세우고 선두 대열에서 행진을 리드해 나갔다.
7.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의 회복을 서원하는 사자사 삼층석탑이 서울시청 앞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8. 종단은 육합상과 본존을 장엄물로 재현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추기를 함창발원 했다.
9.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염원하는 총지 교도들의 불퇴전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독립군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종조 원정대성사 일대기 <7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대성사의 부친은 즉시 안동 영사관으로 압송되었다.

대성사의 나이 13살 때의 일이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대성사의 어린 여동생이 생전에 남긴 회고담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평소처럼 다수의 독립군이 둘러 옥수수와 감자로 아침을 먹고 떠난 후 일본군이 들이닥쳤다.

말 탄 기병대와 소총을 든 수십 명의 일본군이 일본 경찰과 함께 사립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짜고짜 총을 들이대고 독립군의 행방을 물었다.

일본군 우두머리가 말에서 내려 보며 물었다. “독립군을 보았는가?” 대성사의 부친은 비웃으며 답했다. “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이 아니다.” “알고 왔는데 시치미를 떼는 것인가?” “독립군인지는 모르겠고 굶주린 동포가 왔기에 밥을 먹여 보냈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집안을 부술 듯이 온통 뒤집고 살살이 살

폈으나 흔적을 찾지 못하자 대성사의 부친과 17살이던 형을 끌고 갔다. 대성사와 모친, 그리고 어린 여동생 둘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성사는 어린 탓에 번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 깊이 상처가 남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폭력과 자비 없는 악행이 얼마나 사납고 두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은 것이다. 한병대에 끌고 가서 보름 동안 악랄한 고문이 이어졌다.

손톱에 바늘을 꽂아 넣고 집게로 손가락 관절을 모두 비틀었다. 거꾸로 매단 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코에는 소금물을 쏟아 부었다. 피가 터지도록 몽둥이질을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물을 뿌려 깨워 더 심한 매질을 하였다. 더 참혹한 것은 아버의 눈앞에서 자식

을 고문하고, 자식에게 아버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오랫동안 밀정을 통해 대성사 부친의 활동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의 부하로 독립단의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서로군정서를 토벌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질게 고문했던 것이다.

대성사의 부친이 입을 열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사이 독립군들은 본부를 액목현(額穆縣)으로 옮기고, 독립군 대부분도 안도현(安圖縣) 방면으로 이동해 탈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처절하여 체포된 대성사의 형은 고문으로 인해 평생의 지병을 얻게 된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자 형은 보름 만에 석방되고 부친은 신의주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죄목은 제령 제7조 위반. 일제로부터 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기현의 공적은 오래도록 잊혀졌다가 2016년 대통령 포상으로 훈장이 추서되었다. 그 또한 후손에게 알려지지 않아 묻혀졌는데, 다행인 것은 금번 일대기 작업 과정에서 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져 후손에게 훈장과 공적서가 전해지고 독립유공자로 정확히 기록되게 된 것이다. 옥고를 치른 것은 부친이었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대성사도 가족도 모두 우리 광복의 치열한 씨앗과 빛이 됐다.

대성사의 형은 집에 돌아와서도 여러 날을 앓아누웠다.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닥쳤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형제가 고스란히 채워야 했다. 장을 보는일부터, 독립운동가를 위해 멀리 가서 전갈을 전하는 심부름까지 형제가 번갈아 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멀리 떠나보내는 형제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대성사

의 모친은 본디 불심이 깊었다. 남편이 옥고를 치를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묵묵히 인옥으로 자리를 지켰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 불의한 이들에게 당하는 고초였기 때문에 보살심을 잃지 않았으리라.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간도 땅 독립운동가의 아내들이 그랬듯이 점점 기울어 가는 가세를 안간힘을 다해서 버텼다.

어느 날 문득 대성사 형제는 어머니께 간청을 드렸다. “어머니.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말이나?” 어린 대성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희도 독립군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모습이 한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옥고를 치르고 있는 남편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있는데 너희마저 떠난다면 이 집안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은 말리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에 결정하자.”

밀정들은 여전히 대성사 가족 주변을 기웃거리며 살폈고, 간간이 일본군 헌병들도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동태를 살핀다고 들러 가족을 괴롭혔다. 환인현에서 버티는 일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대성사 부친은 8개월의 징역을 꼬박 살고 돌아왔다. 가게는 어려워졌으나 그렇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일제는 무장독립투쟁은 폭도로 몰고 군자금 모금은 강도로 몰아 처벌했다. 독립군이 잡히면 주로 강도, 살인범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겼다.

손기현은 석방된 후에도 망명자 사회에서

상당한 존경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통화현의 한족회원이 독립군 군자금 모금의 와중에 밀정으로 의심 되는 이를 처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성사의 부친은 체포된 이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인으로 나서서 일제에 맞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대성사의 신변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자칫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인 부자가 대성사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양자로 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한다. 당시 서간도 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중국인 지주들의 것이었는데, 그중 가장 큰 부자가 대성사의 집을 찾았다. 대성사 부친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다짜고짜 요청을 했다.

“내 이집 둘째 아드님을 눈여겨보았소. 한눈에도 심성이 바르게 보이고 영민함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 독립군인지는 모르겠고 굶주린 동포가 왔기에 밥을 먹여 보냈다.

소. 이집 사정은 내가 보고 들어 잘 알고 있으니, 이집엔 대를 이을 만이도 있으니 둘째를 내게 양자로 주시면 어떻겠소? 내 필히 잘 가르치고 가진 것을 모두 쏟아서라도 크게 성공한 인물로 키우고 싶소.”

난데없는 요청에 대성사 부모는 잠시 얼어붙었다. 자식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선불리 결정할 수 없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내 멀리 이곳에 와서 망명생활을 하는 것은 민족과 자손의 미래를 도모코자 함이요. 어찌 자식을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천부당한 말씀이니 그 청을 거두시고 돌아가시오.”

그러나 중국인 부자는 순순히 뜻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소. 이집 둘째는 큰 인물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떨칠 운명이요. 하지만 주변 도움 없이는 세상 누구보다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리라. 그러니 내가 맡아 순탄하게 큰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시오.”

그런 간절한 청에도 대성사 부모의 뜻이 완강하자 아쉽게 돌아섰다. 하지만 간혹 들러 대성사를 살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기를 즐겨했다.

부친의 정신을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 김은숙
총 무 | 김옥인, 양재범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 류길자
총 무 | 신혜영, 조향선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 황월분
총 무 | 이귀선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 민순분
총 무 | 배정임

마니 합창단

단 장 | 최 해 선

만다라 합창단

단 장 | 이 상 록

금강 합창단

단 장 | 광 노 선

부림 합창단

단 장 | 조 정 애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9>

혼란스러운 생사 윤회 문제

삶과 죽음의 생사(生死) 문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세속에서도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귀영화가 보장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도하신 뜻도 여기에 있지요. 그러니 생사 문제의 해결은 불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속에서도 생사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生)이란 태어남이고 곧 삶입니다. 태어나 산다는 것은 곧 생계를 이어야 하고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요. 삶은 의식주와 직결된 사회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은 고해(苦海)라 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는 가르침으로 불교를 제시한 것이죠.

생사 윤회를 긍정하는 생멸연기관

근래 우리 불교계에서 이 생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주장이 너무나 달라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즉,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생사 윤회를 불교의 핵심이라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로 위빠사나 수행자로 유명한 어떤 분은 전생 5생과 내생 5생을 관하는 수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생사 윤회를 긍정하고 반복하면서 세세생생 닦아나아가 마침내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해탈한다는 깨달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중도연기관

다른 한편 대승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생사 윤회를 죽은 이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 나고 죽는 것도 생사 윤회로 보고 단박 깨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합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불생불멸”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말하지요. 또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에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생사가 있고 윤회도 있다고 보는 것은 분별의 착각 세계이고 불교의 해탈 세계는 생사가 하나고 과거와 미래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사 윤회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성철 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생과사를 돌로 나눠 다르다고 보는 것은 허망한 분별이고 본래는 하나

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로 초기경전인 『초전법륜경』에서 췌단나(교진여)가 깨치고 “집법(集法)이 곧 멸법(滅法)이다”라 말하자 부처님께서 “췌단나는 깨달았다”고 인가하신 대목을 제시하십니다. 즉, 사성제의 집이 곧 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자들과 대승의 선 수행자들은 똑같이 불교를 말하고 불교의 세계관이 연기관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연기를 전혀 다르게 보고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연기를 생(生)하고 멸(滅)하니 연기한다는 생멸연기를 말합니다. 대승과 선에서는 불생불멸의 중도연기를 말합니다. 생과 멸이 다르게 보이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생도 연기고 멸도 연기이니 하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 같은 불교를 말하고 연기를 말하지만, 그 해석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혼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불교의 연기관과 생사 윤회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바른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방지하고 불교가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지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불교의 혼란은 이런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견이 더욱 더 중요하리라 하겠습니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종립 동해중 반야회 2022년도 첫 법회

교직원 불자회도 올해로 10년 차 맞아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반야회 법회가 4월 25일 교내 동해사에서 열렸다.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반야회(지도법사: 법선 정사)의 2022년도 첫 법회가 4월 25일 교내 동해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회원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장에 김지영 씨(3학년 4반 우혜철 어머니)를 선출했다.

법선 정사는 종단 법회에 처음 동참하는 회원에 대한 배려 차 법문 시간을 빌려 육자진언 및 참회, 오대서원 등 불사법요를 40여 분간 설명했다. 법선 정사는 “소원과 공덕이 성취되려면 발원을 해야 한다”며, “큰

뜻을 세우고 공덕을 쌓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또 이날 법회에는 송인근 교장과 3학년 부장 오영주 교사가 참석해 학부모들과 만나 그간 반야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와 소통하는 학부모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5월 법회는 오는 23일 부산교육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 되기’ 강연에 참여하며 이어가기로 했다. 반야회는 매달 정기 법회를 통해 불

심을 증장하고 회원 학부모들 간의 교류와 학교와의 소통으로 학교발전과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회장: 오영주)도 지난 3월 30일 동해사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교직원 불자회는 올해로 창립 10년 차를 맞고 있으며, 현재 전체 교직원 43명 중 31명이 참여하며,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화합과 나눔의 조직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제23회 현대불교문학상 시부분 공동 수상작



수종사 부처

문숙

절 마당에 검은 바위처럼 엮드려 있다
한자리에서 오전과 오후를 뒤집으며 논다
단풍객들이 몸을 스쳐도 피할 생각을 않는다
가면 가는가 오면 오는가 흔들림이 없다
산 아래 것들처럼
자신을 봐 달라고 꼬리를 치거나
경계를 가르며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생각을 접은 눈동자는 해를 따라 돌며
동으로 향했다 서로 향했다 보는 곳 없이 보고 있다

까만 눈동자를 따라 한계절이 기침도 없이 지나간다
산 아래 세상은 마음 밖에 있어
목줄이 없어도 절집을 벗어날 생각을 않는다
매이지 않아
지금 이곳이 극락인 줄 안다
지대방을 청소하는 보살에게 개 이름을 물으니
무념이라고 한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봉축합니다

이 사장 : 우인정사
교 장 : 송인근
교 감 : 김진화
행정실장 : 법선정사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부산 정각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온누리에 지혜와 복덕이 넘치기를 서원



부산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4일 자성일 법회 후 봉축 점등식을 가졌다. 참석교도들은 대일여래부

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온누리에 지혜와 복덕이 두루 넘치기를 서원하며 일제히 불법승을 외쳤다. 왼쪽부터 자행정 전수, 정인숙 전 회장, 기

로스승 주진제 전수, 기로스승 해정정사, 만다라합창단 안미옥 단장, 다도반 김정애 선생, 신인록 전 회장, 동해중 송인근 교장, 신정화 황영순

회장, 단월회 강경중 회장, 자비회 백일숙 회장,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정각사 대표 최교령 김분숙 교도, 범일 정사가 참여했다.

운천사, 불공 회향 지리산 관불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 스승과 신정회 간부 교도들이 상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고 지리산 관불을 다녀왔다. 지난 4월 12일 지리산 천은사, 노고단을 넘어 함양, 산청을 순례하며, 신심을 증강했다.

제 98회 춘계강공회 승공양 고맙습니다

밀인사 신정회	지인사 신정회
밀행사 신정회	서울경인교구 김은숙 지회장
삼밀사 신정회	단음사 신정회 황월분 회장
성화사 신정회	관성사 이타심 교도
운천사 신정회	성화사 오순자 교도
자석사 신정회	실보사 전정옥 교도
정각사 신정회	

경상남도, 진주 화음사 이귀선 교도에 표창 교통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기여



동료 강한석 대원과 이귀선 교도

진주 화음사 이귀선 교도(61세)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행정부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상남도지역대 부녀부장으로 활동 중인 이 교도는 평소 선진 도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으로 지난 4월 22일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교도는 3년 전부터 현재 봉사대와 인연을 맺고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매주 진주를 비롯해 마산,

통영, 거제, 함안, 거창, 창녕 등 경상남도 곳곳을 다하며 교통 봉사를 해오고 있다. 위험도로의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위한 수신호를 보내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행인의 우산이 되어주고, 어둠이 내린 곳에는 불빛 지팡이를 내어주는 등 안전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는 이 교도는 교통 봉사대 전 10년 정도 불우이웃돕기 클럽에서 활동을 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했었는데, 몸으로 움직이며 직접 돕는 일을 택한 것이 교통 봉사대였다.

20세 나이에 언니 이영선 교도의 교화로 발심하여 서원을 세우고 정각사에서 화음사로 40여 년간 총지교도로서 불심을 키어온 이 교도. 현재 화음사 내에서도 굿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자성일 외에도 매주 화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사원을 방문해 자청하여 해우소(화장실) 청

소를 4년이 넘게 해오고 있다.

이 교도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서 부끄럽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법문으로 알고 힘이 닿는 한 자비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해선 단장, 전국불교합창단 감사에 임명

마니합창단 이끌며 종단 홍보에도 앞장서

총지사 마니합창단 최해선 단장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감사에 임명됐다. 최해선 단장은 지난 3월 31일 종

단협의회 사무실에서 회장 원형스님을 대신하여 사무총장 도각 스님(사진)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최 단장은 현재 서울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마니합창단을 이끌며 단원들과 불음포교로 사원의 교화와 신행활동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불교계와 교류하며 종단의 대외활동에 주도로 참여하여 종단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안 '음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화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임인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우인 정사

종 의 회 의 장 법상인 전수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록경 정사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교정부장 보현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혜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중앙종의회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사감원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법상	흥국사 주교 서강
원의원	실지사 주교 덕광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법장원		일상사 주교 수행월		
중앙교육원		자석사 주교 도우		
밀교연구소		정각사 주교 법일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화음사 주교 원당		
		동해사 주교 법선		